

# 과학영재교육원을 통해서 본 영재교육의 가능성과 한계1)

인천대학교 한 기 순

교육은 흔히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들 한다. 그 말은 사람은 분명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교육을 통해 보다 ‘사람다운 사람’,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뜻일 것이다 (조용환, 2003). 그렇다면 영재교육이라 함은 교육을 통해서 영재들을 보다 ‘영재다운 영재’, 보다 ‘더 영재성이 심화된 영재’, 보다 ‘더 나은 영재’로 만들 때에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 것이다. 영재란 것에 대한 명확한 합의조차 부재한 시점에서 그렇다면 혹자는 ‘무엇이 영재다운 영재인가’ ‘무엇이 영재교육스러운 것인가’란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그 나름으로 문헌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공통된 상을 찾아볼 수 있고 또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한 가늠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은 기존 학교 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과 형태로 차별화되고 있는가? 인간과 교육에 대한 영재교육의 관점은 어떠하며 영재교육에서 제시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의도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영재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영재교육의 의미와 기능은 어떠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영재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재교육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실로 중요한 작업이다. 사실 전국 대부분의 영재교육기관이 베일에 싸여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곳에서의 교육내용, 수업방식,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아 때로는 지나친 기대를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껏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법을 제정하고 기관을 선정하는 등 외형적 형태를 갖추는 하드웨어의 구축에 집중해 왔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재교육의 내부 현실을 들여다 볼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영재교육에 관한 지금까지 연구의 대부분은 정책 및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영재교육의 측면들을 밝히는데 치중해 왔으며 영재교육의 현장에서 인식되는 영재교육의 교육적 의미와 기능은 심층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되어 오지 못했다. 특히 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내면의 실상을 면밀히 탐색해 보려는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 새로운 교육적 실험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뒤를 잇는 선진국 교육학계의 풍토에 비추어 보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g., Woods, 1996).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이란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영재교육의 내부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과연 영재교육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영재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되는 A 영재교육기관의 10명의 교수를 인터뷰

1)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했고 3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했으며 그중 50명의 학생들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와 함께 6개월간의 참여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기관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이 수집되었다.

영재교육원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1)생각을 키우는 교육 - 사고력, 창의력, 과학하는 방법의 습득; 2) 차별화된 교육 -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실험과 도구, 수업방식; 3)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 4) 만남의 교육 - 인맥의 형성: 영재라는 아이들과의 만남; 5) 진로와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 - 진로 선택과 결정의 계기; 6) 영재라는 ‘뺨’과 가산점 - 지나칠 수 없는 유혹; 7) 군자일락 得天下之英才而教育之; 8)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의 지식 & 인격적 지식 - “말로 할 수 없는 것의 체득” 등의 주제들을 통해 영재교육원의 교육적 가능성이 탐색되었다. 영재교육원의 한계와 관련해서는 1) 참여자의 의지와 적극성의 한계 - 연구와 영재일 사이의 갈등; 2) 너무 쉽거나 혹은 너무 어렵거나 - 학생들의 개인차; 3) 평가를 위한 증거 찾기 - 관료주의적 운영; 4) 반복되는 공교육의 문제 - 학생참여와 열의의 부족; 5) 공부이외의 어울림의 부족 등의 문제점 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영재교육다운 영재교육 지향을 위한 시사점이 모색되었다.